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JOE BIDEN 부통령과 자리를 함께 한 CUOMO 주지사, NEW LAGUARDIA AIRPORT의 착공을 발표하다

미국 최대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편의시설, 수용 능력 강화, 혼잡율 감소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공항으로 가꾸기 시작하다

TSA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안 검색대 공간 추가

Q70 Limited Bus 노선 "LaGuardia Link", 2016년 9월에 재출범 예정

New LaGuardia Airport의 새 렌더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 LaGuardia 공항 공사가 시작되어 20여년 만에 미국에 있는 공항을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첫 번째 사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Joe Biden 부통령과 자리를 함께 한 주지사는 새로운 서쪽 주차장 건물 및 기타 지원시설과 함께 새로운 130만 평방피트의 최첨단 35개 게이트(Gate) 터미널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착공은 지난 6월 1일 LaGuardia Gateway Partners와 뉴욕뉴저지항만청이 합의해 최근에 작성된 임대계약서 및 재무마감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신공항은 2018년에 일반인 개장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새로 디자인된 Terminal B의 모든 부분이 개장할 계획입니다. 신 LaGuardia 공항의 새 렌더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LaGuardia는 뉴욕 경제와 교통 네트워크의 주요 동인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대에 맞지 않고 번잡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항을 새로 착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aGuardia 공항을 건설하여 21세기 세계적 수준의 교통 관문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항상 변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산은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번영을 만들어내는 이 유례 없는 프로젝트로 계속 이어져나갈 것입니다."

21세기 LaGuardia Airport

Terminal B를 완전하게 재건설하고 중앙홀을 시공하는 40억 달러 규모의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Delta의 계획된 터미널 재건설과 맞물려 LaGuardia 공항을 확장된 교통 접근로, 크게 늘어난 택시 승차장 및 동급 최고의 승객 편의 시설로 구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주 터미널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도로 네트워크와 함께 시작하며, 새로운 3000면 주차장 건물은 공항 혼잡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이 설계는 승객들이 도착하는 새로운 조명 시설을 갖춘 Central Hall을 포함해 주지사의 Airport Advisory

Panel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홀은 Terminals B와 C를 최초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설계와 관련해 LEED Gold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터미널은 모든 단계에서 천연 광으로 채워질 것이며, CTG(curb-to-gate) 도보 거리도 짧고, 소매, 식음료 스토어 시설 및 더 많은 좌석을 갖춘 널찍하고 편안한 대기실이 들어설 것입니다.

공항 인테리어는 공항 이용객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터미널 전역에서 효율적인 이동이 빨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9/11 이후 비행기 여행의 상황을 생각하여 이 공간은 공항 이용객들이 TSA 검색대 통과 시 대기 시간을 줄여줄 보안 체크인을 위한 공간을 추가할 것입니다.

공사는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 시 공항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새로운 Terminal B의 새로운 게이트의 절반은 2018년에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메인 터미널 구역은 2020년 초에 개장하고, 두 번째 세트의 게이트는 2020년 후반에 한 세트 그리고 2021년에 나머지 세트 식으로 두 단계로 개장됩니다.

터미널을 Grand Central Parkway와 더 가깝게 이동하면 공항유도로를 2마일 이상 늘리고 공항 지상업무의 서비스 지연을 줄여줄 것입니다. 새로운 터미널과 Central Hall 외에도 LGP(LaGuardia Gateway Partners)는 새로운 유틸리티, 활주로 개선 및 기타 주변 인프라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Delta Air Lines은 기존의 C 및 D 터미널 재개발과 관련하여 항만청과 진보된 교섭 중에 있으며, 두 터미널 모두 병렬 건설 트랙에 재건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Q70 Limited 버스 서비스 – "LaGuardia Link"

주지사는 또한 2016년 9월부터 시작해 LaGuardia Airport으로 가는 현 Q70 Route를 이용하는 버스들이 이용객들과 관광객들이 LaGuardia Airport과 다섯 개의 지하철 노선, LIRR와 7개의 버스 노선과 연결해주는 Queens에 있는 두 개의 지역 환승 허브 사이에서 신속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Q70는 Queens에 있는 두 개의 환승 허브 바깥의 연결 지점, 즉 LIRR 환승이 가능한 Woodside-61 St 7 열차역과: Jackson Heights-Roosevelt Av 7, E, F, M 및 R 열차역을 통해 LaGuardia Airport으로 가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들 열차역에서 Q 70은 LaGuardia Airport의 Central Terminal (B), Terminal C 및 Terminal D까지 논스탑으로 운행합니다.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LaGuardia까지 가는 시간은 35분으로 아주 빠르며, MetroCard를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버스로 갈아탈 때 무료입니다.

"LaGuardia Link"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노선은 또한 이용객들이 요금을 선지급하고 어떤 버스나 타고 내릴 수 있어 단일 요금 박스에서 요금 지불을 위해 대기하지 않도록

해주고 정류장에서 정차 시간을 줄여주는 편리한 오프 보드 요금 기술을 사용하는 Select Bus Service가 될 것입니다. LaGuardia Link는 또한 여행객들을 위해 편리한 수화물 보관 랙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Q70 Limited 노선의 개선 활동은 버스 이용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5년 동안 2,000여대의 새로운 첨단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민관 파트너십

착공식은 6월 1일 LaGuardia Airport의 완전한 재개발을 위한 24억 달러 규모 채권의 재무 마감에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LGP의 면세 및 과세 가능 채권은 Empire State Development의 계열사인 New York Transportatio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설계-시공 계약에 따라, 미국 최대 민관 파트너십인 LaGuardia Gateway Partners가 이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2/3 이상은 사금융과 기존의 통행료로 충당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LaGuardia Airport의 재개발은 8,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10,000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13억 달러의 임금을 유발하며,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52억 달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P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터미널 운용, 시공, 설계 및 재무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으로, RFP 경쟁을 통해서 2015년 5월에 항만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컨소시엄 포함 기업:

- Vantage Airport Group – 현재 3대륙에서 9곳의 공항을 운영 중이고, 19개 공항을 공공관리에서 민간관리로 전환했습니다.
- Meridiam –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사 및 자산 관리회사.
- Skanska and Walsh Construction – 건설 합작 기업.
- HOK and Parsons Brinckerhoff – 설계 합작 기업.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 위험성은 설계-건설 계약에 따라 LGP가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MWBE의 30% 참여라는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목표에 걸맞게 새로 짓는 Terminal B 프로젝트 건설은 MWBE 계약업체들에게 Borough of Queen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대적인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뉴저지 항만청 실무이사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착공식은 LaGuardia Airport을 현대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이 진일보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Terminal B와 중앙홀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21세기 시설이 될 것입니다. LaGuardia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3년 이내에 항만청이 체결하는 두 번째 주요 PPP가 될 것입니다."

Vantage Airport Group의 사장 겸 CEO이자 LGP 이사회 의장인 George Cas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Vantage는 프로젝트 개발 방식에 민간 부문 혁신을 접목시키는 공항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에 투자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의 선두에 있습니다. P3 모델을 기업과 커뮤니티를 위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납세자들에게 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본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은 뉴욕 주민들이 먼 미래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항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LaGuardia Gateway Partners의 CEO인 Stewart Steev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Guardia Gateway Partners는 뉴욕에게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과 최신 편의시설 및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팀이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LaGuardia가 커뮤니티와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Meridiam North America 회장 겸 LaGuardia Gateway Partners 이사회 이사인 Jane G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Guardia Central Terminal B 재개발 프로젝트는 많은 관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이곳은 P3 프로젝트 사상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채권 발행의 하나인 미국 최초의 개발 가능 공항 P3으로서, 공항에 변화가 일어나면 매년 LaGuardia의 Central Terminal Building과 항공사들을 통해 1,430만여명의 이용객들에게 완전히 개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LaGuardia가 교통 허브, 지역 경제 엔진, 미국 항공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보여주신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사하며 가급적 최고의 터미널을 건설하여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irport and Government Affairs for American Airlines의 부사장인 Mike Minerv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들과 Central Terminal Building에 상주한 모든 항공사에게 신나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LaGuardia에서 멋진 미래와 달라진 고객 경험 그리고 항만청 및 LaGuardia Gateway Partners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Delta 뉴욕 부사장인 Henry Kuykend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터미널 공사로 발전하고 있는 LaGuardia Gateway Partners와 항만청에 축하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 LaGuardia에 우리의 터미널을 다시 짓고 뉴욕을 위해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로 LaGuardia Gateway Partners와 나란히 업무를 함께 할 계획을 갖는 데 항만청과 최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Delta는 LaGuardia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이곳과 뉴욕주에 거주하는 뉴욕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과 뉴욕에 투자하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합니다."

주지사의 Airport Advisory Panel 의장인 Dan Tish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공항의 착공식은 항만청, Laguardia Gateway Partners 및 우리 Panel에 속한 전문인력들의 엄청난 헌신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이 뉴욕에 보다 나은 공항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Cuomo 주지사의 한결 같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anska USA의 사장 겸 CEO인 Richard Cavalla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Guardia에 현대적인 21세기 Central Terminal을 건설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은 이 공항과 동명의 이름이 가진 유산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공항 건설을 밀어붙혔던 LaGuardia 시장처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LaGuardia에 현대적인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주지사의 비전은 뉴욕을시를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인프라 재건 방식의 청사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Skanska는 뉴욕시의 교통 네트워크의 중요 부분에 재정을 제공하고 재건하는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IA, 터미널 설계 관리자 및 HOK 항공 + 교통 업무의 전사적 이사인 Robert Chic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K는 LaGuardia Airport와 뉴욕의 순간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최첨단 21세기 터미널 콤플렉스의 개발은 LaGuardia의 이용객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세계 최우수 공항들에 포함되는 세계적 수준의 편의시설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상, ‘최악’의 공항에서 ‘일류’ 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평생 뉴욕주민으로 살아온 저는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WSP | Parsons Brinckerhoff의 사장 겸 CEO인 Gregory Kell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LaGuardia Gateway Partners 팀의 주요 기여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SP | Parsons Brinckerhoff는 뉴욕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교통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La Guardia의 새 터미널에서 디자인 합작기업의 일부로 우리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aGuardia를 21세기에 걸맞는 Empire State의 공항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Walsh Construction 공동회장인 Dan Wal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에 이처럼 뜻깊은 일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의 뉴욕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세계적 수준의 건설 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Cuomo 주지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항공 인프라 및 고객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기를 기대합니다."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의 회장인 Bill Rud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iorello LaGuardia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공항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지도 거의 80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 중 하나인 이 시설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수 년에 걸친 태만과 지연 끝에 이 프로젝트는 뉴욕을 중요한 교통 허브로 유지하고, 21세기를 넘어서 글로벌 시티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중요 인프라에 남다른 비전과 책임감을 보여주신 Biden 부통령, Cuomo 주지사 및 항만청에 감사 드립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LaGuardia Airport 공사 착공식은 전 세계에 뉴욕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일류 도시로 남아 있겠다는 다짐을 알리는 것입니다. Biden 부통령과 Cuomo 주지사 모두 우리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

이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LaGuardia는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지역에게도 꼭 필요한 관문입니다. 얼마 안 있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게 될 21세기 공항을 갖게 된다니 정말 기쁩니다!"

Grace Me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Guardia의 정비 사업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마침내 착공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공항을 뉴욕주민들과 우리 뉴욕시를 방문하는 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현대식 일류 시설로 탈바꿈하는 데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오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몇 달 후 이 프로젝트가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Guardia International Airport는 더 넓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입구로 소상공인들과 관광객들의 연결을 빠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숙원 사업의 정비로 LaGuardia는 중요한 국가 교통 허브로 부활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계속 이바지할 것입니다."

Jose Peralta 주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화는 생존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LaGuardia Airport는 우리 시의 경제에 중요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일자리는 특히 Queens와 우리 지역에 중요합니다. JFK International Airport에 있는 기존 것과 유사한 에어트레인이 건설되면 LaGuardia 공항은 마침내 21세기 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Century. 이런 계획을 마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우리 공항의 현대화 사업에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Queens 보로장인 Melinda Ka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Queens에 중요한 날입니다. 인프라 업그레이드는 우리 보로와 우리 시의 경제 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공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미래의 인프라와 기술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LaGuardia의 혁신화로 우리 시의 차별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착공식은 세계의 국제 자본에 걸맞는 21세기 첨단 공항 및 진입 포털을 만드는 데 큰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Julissa Ferreras-Copeland 시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East Elmhurst, NY에 새로운 LaGuardia Airport 부지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LaGuardia Airport은 이 지역에서 경제 엔진으로 새단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밑에 있는 흙 위에 우뚝 솟아오를 이 공항의 멋진 모습을 볼 때까지 이 커뮤니티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위대한 도시의 나머지 지역들이 이 새롭게 개선되는 공항으로 좋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처럼 시, 주 및 연방 관리들과 함께 East Elmhurst와 이웃 커뮤니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